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상편 ◀

1. 문학의 기능과 원리

- (1) 배를 매며 (40문제)-----1쪽
- (2) 성난 풀잎 (31문제)-----19쪽
- (3) 어부사시사 (52문제)-----33쪽
- (4)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54문제)-----55쪽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이생규장전 (55문제)-----84쪽
- (2) 쉽게 씌어진 시 (40문제)-----117쪽
- (3) 스노우맨 (33문제)-----137쪽
- (4)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31문제)-----159쪽
- (5) 저녁에 (14문제)-----178쪽
- (6)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6문제) -----184쪽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 (1) 제가야산독서당 (35문제)-----210쪽
- (2) 황진이 (29문제)-----224쪽
- (3) 나도 그들처럼 (9문제)-----247쪽
- (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35문제)-----255쪽

◆빠른 전체 정답-----276쪽

◆해설-----28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상편 ◀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상편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상편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망망의 숲 한켠이 보인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머리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배를 매며” 분석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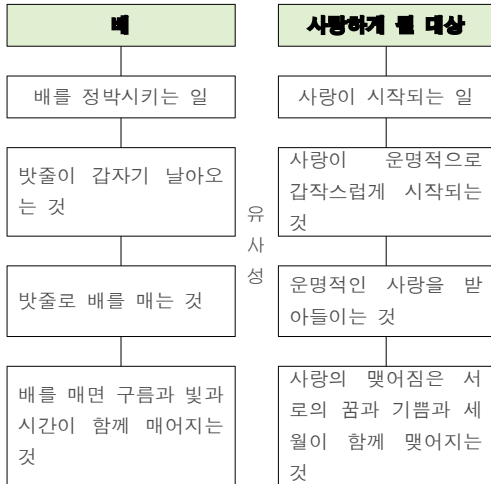
작품 기법

간체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사색적, 비유적
제재	배를 매는 일
주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특징	① 유추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함. ②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부각함. ③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함.

작품의 구성

1연	우연히 배를 매어 본 경험
2연	갑자기 배를 매듯이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
3연	배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4연	사랑에 대한 깨달음
5연	울렁이며 온종일 떠 있는 배

핵심 1 유추의 전개 방식



핵심 2 시어의 의미

배	사랑하게 될 대상
빛줄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부딪가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는 곳, 사랑이 찾아올 공간
구름, 빛, 시간	사랑하는 대상을 둘러싼 세계(주변 환경)

핵심 3 사적 화자의 경서 및 태도

• ‘사랑은-배를 매게 되는 것’
 •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

사색적인 어조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담담하게 표현함.

핵심 4 운율 형성 요소

•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맨다’, ‘닿는다’
 • ‘받는 것’, ‘되는 것’, ‘매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는 것’
 •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사랑은(이란)~~(는) 것’

↓

통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배를 매다” 씬용 4인칭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다

“배를 매며”의 리듬감과 문법적 요소

1.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화자가 있는 장소	시적 화자가 하는 행동
부룻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에서 던져진 밧줄을 영겁결에 받아 맬. • 구름과 빛, 시간이 함께 있는 배를 바라보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게 됨.

2. 다음 사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배	넋 사랑하게 될 대상
밧줄	사랑의 대상과 맺는 인연
부룻가	이세 넋 •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 • 사랑이 찾아올 공간

3. 마지막 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자.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은종일을 떠 있다

- 운명적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설렘.
- 운명적 사랑의 환희와 경이로움을 느낌.

4. 이 작품에서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 보자.

리듬감이 느껴지는 부분	그렇게 생각한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 ‘맬다’, ‘달는다’ • ‘받는 것’, ‘되는 것’, ‘매어진다’는 것’, ‘그런 것’, ‘아는 것’ •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3연),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4연)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이 느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은(이란) ~ -L(는) 것’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이 느껴짐.

5. 작품에 나타나는 비유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갑자기 날아오는 것	운명적으로 사랑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빛깔로 배를 매는 것	I 답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는 것	I 예시 답 사랑의 맺어짐은 서로의 꿈과 기쁨과 세월이 함께 맺어지는 것

6. 이 작품이 정서적·미적으로 감동을 주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갑자기 찾아온 사랑과 그 심정을 적절한 비유와 리듬을 통해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7. 다음 작품이 정서적·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리듬감과 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山)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甘露)같이 단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山) 너머는 평안도(平安道) 땅도 보인다는 이 산(山)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 <백화(白樺)>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향토적, 자연 친화적
주제	자작나무
주제	순수한 삶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
특징	①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남. ② '자작나무다'라는 시구를 각 행의 끝에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이 작품은 시행 끝에 특정 시구('자작나무다')를 반복 배열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심상(시각, 청각, 미각)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산골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 교과서 문제는 시험에 그대로 출제될 수 있으니 필히 암기할 것!
- ★ 답이 제거된 버전은 총만국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배를 밀며” 민중 시집

시에서 배의 의미- 시인, 그리고 푸른 눈

마당에 / 녹음 가득한
 배를 매다 //
 마당 밖으로 나가는 징검다리
 끝에 / 몇 포기 저녁 별
 연필 깎는 소리처럼 / 떠서 //
 이 세상에 온 모든 생들
 측은히 내려 보는 그 노래를
 마당가의 풀들과 나와는 지금
 가슴 속에 쌓고 있는가 //뺏길 당겼다 놓았다 하는
 영혼 / 혹은, / 갈증 //
 배를 풀어
 쏟아지는 푸른 눈발 속을 떠갈 날이 / 곧 오리라//
 오, 사랑해야 하리 / 이 세상의 모든 뒷모습들
 뒷모습들

- , <마당에 배를 매다>

외판집에 내리던 ‘사락눈’이 ‘살구나무의 뿌리’를 깨우면서, ‘살구꽃’을 허공에 띄워 내더니만, 이젠 그 나무가 매여 있는 ‘배’로 미끄러진다. 봄의 살구꽃이 마치 ‘흰 돛배’처럼 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면, 여름의 살구나무는 ‘녹음 가득한 배’인 것이다. 어느 해 저물녘 마당에 앉아 초월의 삶을 꿈꾸던 시인은 그 숲에 어둠이 깃들이기 시작하자 연상 작용을 통해 조용한 밀물처럼, 그 밀물을 타고 들어오는 ‘배’를 발견하게 된다. 대개 인간의 인생을 사계절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시 ‘마당에 배를 매다’는 한창 청춘이 무르익고 젊음이 깊어가는 시점에서, 녹음을 가득 싣고 온 ‘시간’이라는 심연의 배를 타고 진지한 생의 고찰에 다다르기 위해 또 하나의 비유적 사건을 형성해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여름 마당에서 시인은 스스로 삶을 수용하는 방식과 그의 각오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는 시집 《왼쪽 가슴 아래쪽에 온 통증》에 <배를 밀며>와 <배를 매며>라는 시와 나란히 실려 있어서, 배에 관한 3부작으로 묶어서 읽어 본다면 <마당에 배를 매다>의 해석의 틈을 채워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를 민다

배를 밀어 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는
 운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 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중략)

시인은 이 <배를 밀며>와 <배를 매며> 두 편의 시에서 배를 밀고 매는 행위를 ‘사랑과 슬픔의 경험’과 밀착하여 풀어쓰고 있다. 첫 번째 시 <배를 밀며>에서 바다로 배를 민다는 것은 단순히 부두를 떠나는 출항이 아니라, 순간의 허공 속으로 ‘운몸이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힘껏 배를 밀고 얼른 배로부터 손을 거두는 ‘아주 드문 경험’이다. 여기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스며 있는데, 이렇게 운몸으로 배를 밀고 순간 환해진 손을 거두는 행위는 ‘사랑’의 경험과 직결되면서, 헤어지면 슬픔과 흉터를 남기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1-(1) 배를 매며 [이론편]

불구하고 다시 배가 밀려 들어오기를, 즉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일러 주고 있다.

두 번째 시 <배를 매며>는 <배를 밀며>의 마지막 행을 첫 행에 반복하면서 바로 연결되고 있는 시임을 보여 준다. 떠났던 배가 조용히 돌아오는 것, 돌아온 배의 밧줄을 얼떨결에 매는 것, 거기에 구름과 빛과 시간도 함께 매임을 처음 아는 것 등이 바로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사랑은 끊임없이 배를 밀고 매고 풀면서, 내면의 고향과 같은 겹겹의 추억을 만들어 가며 진행되는 것이다.

이제, 이 두 편의 시가 가지는 해석적 의미를 바탕으로, 시 <마당에 배를 매다>를 다시 보자. 마당은 시적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 공간이자 그의 내면세계이기도 한데, 이 시에서는 푸른 마당이 푸른 바다로 전이되어 읽히기도 한다.

한 편의 시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변주되는 ‘배’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주는데, 마당에 서 있는 나무 자체이면서, 여름 숲의 해질녘에 밀려 들어오는 어둠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한 줌의 시간을 싣고 다니는 생의 한 단면이자, 사랑의 대상이며, 또한 시 작품 자체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마당에 배를 매는 행위는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 지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시적 화자가 배를 매면서 환했던 추억, 혹은 내면의 고향에 들어가는 날이면 그의 머리 위에는 별이 뜨고, 제한된 세계를 초월해 보고자 하는 그의 충만한 의지는 시인의 별에 다다르기도 한다. 이때 징검다리인 마당 안과 마당 밖을 연결시키는 수평적 이동 통로이자, 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수직적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이다. 별이 ‘연필 깎는 소리처럼 떠서’라고 표현된 것은, 배를 매는 행위가 사랑의 행위이자, 또 시인에게는 바로 ‘시 쓰기’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상이 되어 줄 자연과 사물을 관찰하고 시인이 거기에 동화됨은, 시를 쓰기 위한 도구를 다듬는 일·연필을 깎는 행위와 동일할지 모른다.

다른 작품: 정석남의 <배를 밀며>

동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내용상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배를 미는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로 유추하여 나타내고 있다. <배를 매며>의 시적 상황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시를 감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김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사색적, 비유적
제지	배를 미는 일		
주제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		
특징	① 배를 미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유추함.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교재]가 유사한 작품: 유치환의 <행복>

‘편지’를 소재로 하여 사랑을 하는 일의 설렘과 소중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배를 매며>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면서 사랑의 어떤 측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지 비교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김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낭만적
제지	사랑의 행복		
주제	사랑의 소중함과 이를 통해 깨달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		
특징	①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시상의 안정감을 획득함. ② 일상적이고 평이한 시어를 통해 부드러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낮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 떠 있는 배

①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소담고등학교 (세종)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랑에 빠진 설렘과 행복감이 드러나 있다.
- ②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는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
- ④ 바다 위에 조용히 떠 있는 배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 ⑤ 어구의 반복과 소재에 상징적 의미 부여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인제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의 화자가 했음직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은 배를 매듯 주체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야.
- ② 온종일 사랑에 빠진 설렘과 기쁨을 걱정적으로 노래하고 있어.
- ③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의 주변 환경까지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야.

- ④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지만 언젠가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
- ⑤ 부둣가에서 사랑의 인연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지켜낼 거야.

인제고등학교 (인천)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서 사랑을 형상화한 방식과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보기>

윗글은 직접 지각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인 행위인 '배를 매는 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① 무음아 너는 어이 미양에 저뻐한다.
 내 늘글 적이면 넌들 아니 늘글소나
 아마도 너 좇녀 돈니다가 늬 우일가 흐노라.
- ② 꿈에나 님을 불러 잠 일울가 누엇드니
 새벽 달 지새도록 자규성(子規聲) 어이허리
 두어라 단장춘심(斷腸春心)은 너나 내나 달오리.
- ③ 이련들 엇더하며 더련들 엇더호료..
 草野愚生(초야우생)이 이려타 엇더호료.
 흐몰며 泉石膏肓(천석고황)을 고타 므슴호료.
- ④ 집 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인들 못 안즈라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도다 온다.
 아희야 박주산채(薄酒山菜)르만정 업다 말고 내여라.
- ⑤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 할샤.
 날러 다 못 날러 불러나 푸뫼든가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 나도 불러 보리라.

동탄고등학교 (경기)

4. 윗글과 <보기>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

- ①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법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의지적인 존재로 형상화하여 현실 극복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동탄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뱃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② '천천히', '조용히'는 차분한 화자의 성격을 드러낸다.
- ③ '부딪기'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설정한 배경이다.
- ④ '잔잔한 바닷물'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⑤ '울렁이며'는 사랑에 빠진 화자의 경이로움을 보여 준다.

동탄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의 화자가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공감하는지 <조건>에 맞추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조건>

- ㉠, ㉡ 중 하나를 골라 화자가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반드시 언급할 것.
- 화자의 깨달음에 대한 공감 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것.
- 공감 여부에 대한 근거(자신의 경험 또는 유사한 사례)를 들어 서술할 것.

화흥고등학교 (경기)

7. 윗글에 쓰인 시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는 사랑의 대상을 의미한다.
- ② '뱃줄'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의미한다.
- ③ '부딪기'는 사랑이 찾아올 공간을 의미한다.
- ④ '구름과 빛과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를 의미한다.
- ⑤ '울렁이며'는 사랑으로 설레는 마음을 의미한다.

광주고등학교 (광주)

8. 윗글에 사용된 시상 전개 방식을 쓰고, 그에 따라 <보기>의 ㉠ ~ ㉣의 함축적 의미를 각각 서술한 후, 이를 근거로 작품의 주제를 서술하시오.

<보기>

- ㉠ 뱃줄이 갑자기 날아오는 것.
- ㉡ 뱃줄로 배를 매는 것.
- ㉢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지는 것.

<조건>

- 1. 완결된 문장을 갖추어 서술하시오.
- 2. 글(가)에 나타난 시상 전개 방식을 제시하시오.
- 3. 2번 조건을 참고하여 ㉠ ~ ㉣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시오.
- 4. 작품의 주제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닢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나)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山)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甘露)같이 단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山) 너머는 평안도(平安道) 땅도 보인다는 이 ㉠산(山)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백석, '백화(白樺)'

삼일여자고등학교 (울산)

9.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다냐.
 이시라 하더면 가라마난 제 구태야
 보내고 그리난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 ① (가)와 <보기>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보기>와 달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보기>와 달리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보기>는 (가)와 달리 이별이 시적 화자가 놓인 상황이다.
- ⑤ (가)는 사색적 어조인데 반해, <보기>는 회한적 어조이다.

삼일여자고등학교 (울산)

10.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사랑하는 이와 인연이 시작되는 반가움을 그리고 있다.
- ③ ㉢ : 사랑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정성을 쏟게 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 사랑으로 인해 온종일 설레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계산여자고등학교 (인천)

11. (가)의 시구에 담긴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화자의 답답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에서 멀어지는 인연을 지속하고 싶은 화자의 적극적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③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에서 화자가 혼자서 오랫동안 상대방을 사랑해 왔으나, 신중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뉘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에서 상대방과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사랑에 회의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화자가 상대방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도 안 잡히고~그럴 땐 기출에 나온 작품 군들만이라도 조금 정리해두자. 이렇게 <보기>로 전문이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제와 길잡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렇게 익히다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큰 틀의 감상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여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 대립적 전개
-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스
-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해당 없음.

2.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아라, -려무나, -어/-아...
(철수야, 밥 먹어라.)

3. 점층법 vs 점강법 (★)

- ㄱ. 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 ㄴ. 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9.①
▶㉠은 국권을 빼앗긴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출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의인법 vs 활유법 (★★★)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응, 헛갈리지 마!◀

- *냉소적 태도: 쌀쌀한 태도로 낯을 비웃는 태도.
 - *자조적 태도: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
- <자조적>은 후회, 한탄, 체념, 능력 부족, 의지박약 등의 부정적 정서와 어울린다.

11.④
▶'그러나'라는 시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절망적 현실 인식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 ㄱ. 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 ㄴ. 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 '떨떨 나는 저 <피꼬리> / 압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올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피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 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 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반어법 vs 역설법 (★★★)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12.④
▶㉡은 식민지 현실에 재인식을 나타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의 심상과 감각 (★★★)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2.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13.②
① ㉠ :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끌림. ③ ㉡ : 국토에 대한 애정

④ ④ : 앞에 시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에 시적 화자를 비유함. ⑤ ⑤ : 정서적 불균형으로 인한 내면의 갈등을 동작으로 형상화함.

14. ②

▶3연과 9연에서는 답답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임.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직유법 vs 은유법 (★★★)

ㄱ. 직유법: A는 B와 같은 (사과 같은 얼굴)

ㄴ. 은유법: A는 B이다 (우리의 지폐는 박물관이다)

15. ④

▶'혼자라도 가쁘게 가자'고 하는 점에서 민족이 다 함께 가지 못하지만 혼자라도 기꺼이 광복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함.

16. ②

▶'네가 끝났느냐'는 일반 의문문이지만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설의법임.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18. ⑤

▶(가)에선 국권(국토) 상실의 비극적 현실을 인식하며 (나)에선 국권 회복의 염원이 담겼을 뿐이지, 국권 회복의 확신은 아님.

19. ⑤

▶◎ : 강렬한 희생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격분(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복받쳐 오름)한 감정의 표출까진 아님.

21. ①

▶음성 상징어는 없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시의 전개 방식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 대립적 전개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해당 없음.

2.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2. ④

▶현실을 재인식 한 뒤의 감정의 혼란이 온 것임.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반어법 vs 역설법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2. 공감각 vs 복합 감각 (★★)

ㄱ. 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 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응, 헛갈리지 마!◀

*냉소적 태도: 쌀쌀한 태도로 남을 비웃는 태도.

*자조적 태도: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

<자조적>은 후회, 한탄, 체념, 능력 부족, 의지박약 등의 부정적 정서와 어울린다.

24.③

▶ 절망적 현실 인식하는 것뿐이지, 국권 회복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건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점층법 vs 점강법 (★)

ㄱ. 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낮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ㄴ. 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25.②

▶㉠: 변함없는 대지의 생명력에 대한 고마움

26.⑤

▶㉠ 가정법은 없음. ㉡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는 보기 어려움.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 1) 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 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 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27.②

▶ <보기>의 '고와서 서러워라.'는 역설로 ㉠과 같이 역설임.

<승무(僧舞)>

*주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해제: 이 시는 '승무(僧舞)'라는 춤을 통해 세속적인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으로, 4음보의 율격이나 소재면에서 전통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9연의 이 시는 춤을 추는 동작의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나는 '하이얀, 감추오고, 모두오고, 감기우고' 등의 시적 허용과 '이 밤사, 삼경'과 같은 예스러운 표현, 그리고 수미 상관의 구조 등은 이 작품의 고전적인 분위기와 세속적 번뇌의 승화라는 주제 의식에 기여하고 있다.

28.①

▶ 화자가 걷는 것은 (가)에선 갈등의 형상화, (나)에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성찰에 대해 알아보자! (★★)

1) '부끄러움', '후회' 등의 심리 상태는 <반성적> 혹은 <성찰적 태도>와 관련 있다.

2) 대개 화자의 반성, 성찰, 깨달음 등을 통해 <고훈>을 이끌어 낸다.

3)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4) <성찰>을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뿐만 아니라, 넓게는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

29.①

▶ 들을 빼앗긴 현실 인식하는 것이지, 봄이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하는 건 아님.

30.③

▶ ③을 제외한 나머지엔 공감각 심상이 나타남.

- ①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시각의 청각화
- ②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시각의 후각화
- ④ 울음이 타는 가을 강-시각의 청각화
- 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시각의 촉각화

32.①

▶ ㉠와 ①의 '금빛 게으른 울음'(청각의 시각화)은 공감각적 심상임.

33.④

▶ 9 ~ 10연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지만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님.

34.③

▶ 화자는 자연에 애착을 느끼며 자연물(입술을 다문 하늘아들아)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넣어둬, 패턴 공략◀

1. 계절감 (★)

계절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2.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미> 등의 사용

3. 시에서 보통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면 화려하고 행복한 과거와 초라하고 불행한 현재의 모습으로 대비되는 경우가 많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